

가정전문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김희승** · 유소영** · 김명자** · 백희정*** · 김윤옥****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업무 스트레스는 직업과 직장환경에서 오는 많은 요구나 압력에 대해 직장인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심리적, 생리적 반응이며, 직장생활은 끊임 없는 스트레스의 연속이다(오와 민, 1993).

현대 산업사회로 갈수록 여성의 사회진출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부분이 여성인 간호직은 급증하는 관료적인 병원행정, 어려운 근무조건, 간호대상자의 다양한 욕구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직업이다. 또한 간호사는 24시간 환자를 계속 돌보아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불규칙한 교대 근무 상황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상황은 생체 기능의 밤낮에 대한 리듬이 맞지 않아 심신에 영향을 받게 된다(조, 1991). 그리하여 일반병동뿐 만 아니라 특수병동인 수술실(이, 1998), 중환자실(최, 1998), 정신과 병동(김, 1995), 응급실(박과 고, 1999), 한방병원(최, 1999) 및 손해보험회사 심사간호사(정, 2001)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간호 업무의 한 분야인 가정간호는 최근 만성환자와 노인환자의 증가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요하는 재가환자

를 위한 서비스의 하나이다. 가정전문간호사의 업무는 주어진 시간 내에 책임량을 완수해야하는 병원간호업무와는 달리 1:1의 환자 만남이 가능한 독특한 속성이 있는 한편 자신의 판단력과 수행력이 요구된다(서 등, 2000). 또한 가정이라는 환경이 대상자에게는 가장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정전문간호사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가정간호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민의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간호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는 연구를 시점으로 가정간호와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어, 최근에는 가정간호 수가산정이나 표준화된 프로토콜 개발 등의 실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과 권, 2000).

그러나 가정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어떠한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제까지 조사된 바가 거의 없는 가정전문간호사 스트레스 실태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가정전문간호사 스트레스 실태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전문간호사 특성별 업무 스트레스 차이를

* 이 논문은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가정간호연구실 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 적십자간호대학

**** 서울아산병원 가정간호사업실

조사한다.

둘째, 업무 스트레스 항목의 순위를 파악한다.

셋째, 업무 스트레스와 간호사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가정전문간호사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2003년 4월 현재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89개 기관의 가정전문간호사 233명 중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73개 기관의 가정전문간호사 139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업무스트레스 측정 도구

가정전문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측정은 CHN-PWRSQ (Community Health Nurses Perceptions of Work-Related Stressors Questionnaire)(Walcott-McQuigg, 1992)를 참조하여, 국내의 가정전문간호사의 업무에 맞게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내용타당도는 2명의 간호대학교수와 석사 학위를 가진 가정전문간호사 2명으로부터 검증받았다.

설문지 도구는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트레스가 전혀 안됨은 0점, 낮은 스트레스는 1점, 보통 스트레스는 2점, 높은 스트레스는 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96 이었다.

4. 자료 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였으며 가정간호사업기관의 가정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한 대상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 후 회송되도록 하였다. 총 209부의 설문지 중 139부가 회수되어 66.5%의 회수율을 보였고, 모두 분석에 이용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정전문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문항별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가정전문간호사의 특성 별 업무스트레스 차이는 unpaired t-test 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업무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가정전문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8.3세이었고, 76.3%가 배우자가 있었다. 전문대학 졸업자가 45.3%로 가장 많았고 30.9%는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고용상태는 정규직이 80.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평균 월 급여는 196.2만원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12.7년으로 10년 이상이 67.6%로 가장 많았고, 가정간호 경력은 3년 미만이 66.9%, 3년 이상이 33.1%이었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65.0%, 수간호사 이상이 19.7%, 책임간호사 15.3%이었다. 가정간호 부서에 근무하게 된 동기는 '적성에 맞아서'가 5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본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가 37.6%이었다(표 1).

2. 가정전문간호사 특성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의 차이

대상자의 스트레스 점수는 201점 만점에 평균 107.1점으로 중간정도의 스트레스를 보였다.

총 임상경력이 10년 미만인 군(112.2점)이 10년 이상인 군(104.7점)보다 업무스트레스가 높았다($F=2.09$, $p=0.039$). 가정간호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군(111.1점)이 3년 이상인 군(98.9점)보다 업무스트레스가 높았다($F=-3.3$, $p=0.001$). 월평균 급여가 200만원 미만인 군(99.5점)이 200만원 이상인 군(117.4점)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F=-3.30$, $p=0.001$). 연령별로는 29세 미만 군이 118.7점, 30~39세 군이 110.8점, 40세 이상 군이 99.6점으로 연령별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배우자, 종교, 교육정도, 고용상태, 직위 및 가정간호부서에 근무하게 된 동기별 업무스트레스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표 1〉 가정전문간호사 특성별 업무 스트레스 차이

특성		N (%)	Mean±SD	F or t	P
연령 (세)	≤ 29	10 (7.2)	118.7±24.6	2.55	0.082
	30 to 39	76 (54.7)	110.8±33.3		
	≥40	53 (38.1)	99.6±32.4		
배우자	유	106 (76.3)	104.5±35.7	0.52	0.606
	무	33 (23.7)	107.9±32.0		
종교	유	102 (73.4)	105.3±32.1	-1.07	0.288
	무	37 (26.6)	112.0±34.7		
교육	전문대	63 (45.3)	105.9±32.2	2.29	0.106
	4년제 대학	33 (23.7)	117.4±29.7		
	대학원	43 (30.9)	102.6±34.1		
고용상태	정규직	102 (80.3)	109.0±32.8	0.31	0.753
	계약직 또는 임시직	25 (19.7)	106.8±26.6		
총 임상경력 (년)	<10	45 (32.4)	112.2±30.8	2.09	0.039
	≥10	94 (67.6)	104.7±33.6		
가정간호 임상경력 (년)	< 3	93 (66.9)	111.1±31.9	-3.30	0.001
	≥ 3	46 (33.1)	98.9±33.5		
월평균 급여 (원)	< 2,000,000	80 (57.6)	99.5±32.6	-3.30	0.001
	≥ 2,000,000	59 (42.5)	117.4±30.5		
직위	일반간호사	89 (65.0)	106.6±34.5	0.02	0.985
	책임간호사	21 (15.3)	107.6±31.8		
	수간호사, 감독, 과장	27 (19.7)	105.9±26.7		
가정간호 부서에 근무하게 된 동기	적성에 맞아서	70 (56.0)	102.1±33.9	0.88	0.418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8 (6.4)	114.5±23.4		
	본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47 (37.6)	108.6±32.7		

3. 가정전문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순위

대상자의 업무 스트레스는 항목별로 '장거리 운전 및 교통체증'이 3점 만점에 2.63점으로 가장 높았고 '업무중 교통사고의 위험'은 2.62점, '기상조건의 악화'는 2.59

점, '비협조적인 가족 구성원'은 2.51점, '비협조적인 환자'는 2.4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정간호 업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의 부족'은 평균은 1.00, '가정간호 사업환경이 익숙치 않음'은 1.08, '일상적인 환자간호 절차들'은 1.11점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표 2).

〈표 2〉 가정전문간호사 스트레스 문항 순위

(N=139)

스트레스원	평균	표준편차
장거리 운전 및 교통체증	2.63	0.66
업무중 교통사고의 위험	2.62	0.58
기상 조건의 악화(폭우, 폭설 등)	2.59	0.71
비협조적인 가족 구성원	2.51	0.67
비협조적인 환자	2.41	0.73
지리적으로 익숙치 않은 지역의 방문	2.33	0.76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간호	2.28	0.73
가정방문시 주차공간의 부족	2.27	0.79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환자의 죽음	2.19	0.85
환자 간호시 발생하는 응급상황 등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법적 책임등)	2.18	0.91
전염성 질환에의 노출	2.15	0.87
급여 이외 혜택의 부적절성 (각종 수당 등)	2.15	0.92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간호	2.07	0.75
안전하지 않고 청결하지 않은 환자 가정	2.06	0.82
입증을 앞둔 환자 간호	2.05	0.87
죽음에 대해 환자와 대화하기	1.98	0.84

〈표 2〉 가정전문간호사 스트레스 문항 순위(계속)

(N = 139)

스트레스원	평균	표준편차
휴가 등 비번에 대비하여 환자 관리를 대신할 인력배정	1.97	1.00
주치의의 지원부족(무시, 무관심)	1.90	0.98
환자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부족	1.88	0.80
부적절한 보수	1.88	0.97
승진 기회의 부족	1.86	1.04
주치의와 연락이 어려움	1.85	0.99
환자 가족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부족	1.82	0.78
환자에 대해 24시간 마음을 쓰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	1.81	0.94
계속교육을 위한 공가처리의 부족	1.81	1.00
근무시간 이외의 전화상담	1.80	1.02
환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정보 부족	1.72	0.69
직업 보장의 불안정성	1.71	1.01
업무를 완수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 부족(비번의 사용, 시간의 업무)	1.68	1.00
시간의 업무에 대한 요구 (야간 업무, 위원회 참석, 보고서 작성등)	1.68	0.99
가정간호의 결과를 다른 전문 인력과 함께 평가할 능력의 부족	1.68	0.83
가정 방문 이외의 업무과중	1.67	1.01
신체적 위해에 대한 위협 (강도, 폭력등)	1.59	0.87
간호지도력(nursing leadership)에 무반응	1.57	0.93
차량 지원의 부족	1.56	1.18
의사소통의 문제 (세대간, 지역간, 종교)	1.55	0.76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거나 기회가 적음	1.54	0.90
처치 수행시 실수에 대한 두려움	1.53	0.78
기관내 타부서와의 협력 부족	1.52	0.90
업무 완수가 불가능할 정도의 자원부족 (재정 자원, 의뢰자원등)	1.51	0.95
환자 사례 관리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1.51	0.90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1.49	0.89
비좁은 근무 공간	1.48	1.06
타 기관의 협력 부재	1.47	0.89
성희롱	1.46	1.05
직원수가 부족하여 시간외 업무를 해야 함	1.44	0.98
업무 위임에 따른 어려움	1.44	0.86
직원간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	1.44	0.84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직원과 나눌 기회의 부족	1.42	0.85
상급 직원과의 갈등	1.40	0.86
의료용품의 부족	1.39	0.94
환자간호와 관련된 문제를 다른 직원과 솔직히 터놓고 대화할 기회의 부족	1.38	0.82
가정간호에 대한 지식부족	1.36	0.91
전문직 직원의 자질부족	1.34	0.85
가정간호의 경험부족	1.29	1.05
직원간 근무조건의 차이로 인한 갈등(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무 등)	1.29	1.03
기술을 익힐 기회의 부족	1.28	0.97
보험청구와 관련된 서류업무	1.28	0.92
직원간 역할의 모호함	1.26	0.86
비전문직 직원의 자질 부족	1.25	0.86
환자가 한 거주지에 머물지 않음	1.24	0.83
가정간호 부서 내에서의 협력부족	1.24	0.86
본연의 업무보다 기관의 업무가 우선됨	1.22	0.81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1.16	1.12
일상적인 환자간호 절차들	1.11	0.80
가정간호 사업환경이 익숙치 않음	1.08	0.85
가정간호 업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의 부족	1.00	0.88

4. 가정전문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주요변수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연령은 업무 스트레스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0.20, p=0.016$)를 보였고, 임상경력 또한 업무 스트레스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0.24, p=0.003$)를 보였다(표 3).

〈표 3〉 가정전문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연령, 총임상경력, 가정간호임상경력, 월평균 급여와의 상관관계 (N=139)

변수	업무 스트레스
	r (p)
연령	-0.20 (0.016)
총 임상경력	-0.10 (0.209)
가정간호 임상경력	-0.24 (0.003)
월 평균급여	0.09 (0.279)

V. 논 의

본 연구 대상인 가정전문간호사의 평균 연령은 38.3세,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76.3%로 대부분이 30대 후반 기혼자였다. 가정전문간호사의 연령이 비교적 많은 것은 일정기간 임상경력을 경험한 후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직업을 가지려는 사회제도와 환경변화된 것으로 사려되었다. 손해보험회사 심사 간호사 대상으로 한 연구(정, 2001)에서도 30세 이후 기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3교대 근무가 아닌 규칙적인 근무를 할 수 있어 기혼자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전문간호사의 스트레스 점수는 201점 만점에 평균 107.1점으로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를 보였다.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홍, 1998) 5점 만점에 3.04점, 100점 환산 점수는 60.8점이었고,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1993)의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3.60점, 100점 환산 점수는 72.0점으로 나타나 가정전문간호사가 종합병원 간호사나 중환자실 간호사보다는 업무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자보다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이었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최(1993)의 연구에서는 기혼에서 상관과의 관계와 근무스케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가 가정전문간호사 이기 때문에 주로 근무시간이 낮이기

때문에 배우자 유, 무 별로는 스트레스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려되었다.

종교 유·무 별로는 종교가 없는 경우가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이었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김과 구(1984)의 연구에서도 종교와 업무 스트레스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가정전문간호사 교육수준에 따른 업무스트레스는 4년제 졸업생이 가장 스트레스가 높았고, 그 다음은 3년제 대학 졸업생, 대학원졸업생의 순으로 대학원 졸업생이 가장 낮은 경향이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이, 1983; 최, 1998)와 비교되었다. 본 연구 대상인 가정전문간호사인 경우 학력이 높아 지식이 많은 경우 다양한 가정환경에서 잘 대처하여 업무스트레스가 낮은 경향으로 사려되었다.

가정전문간호사의 총 임상경력이 10년 미만인 군이 10년 이상인 군보다 업무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는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병원환경과는 다른 가정에서 잘 대처하여 업무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사려되었다.

본 연구 결과 월평균 급여가 200만원 미만인 군이 200만원 이상인 군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아 월급도 업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정간호부서에 근무하게 된 동기별 업무스트레스 점수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정된 경우가 업무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이어서, 업무 부서를 배정할 때 가능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업무스트레스를 낮추는 방법인 것으로 사려되었다.

업무 스트레스 항목별로는 '장거리 운전 및 교통체증'이 3점 만점에 2.63점으로 가장 높았고 '업무중 교통사고의 위험' 항목은 2.62점, '기상조건의 악화'는 2.59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운전하여 환자의 가정을 방문할 때 교통체증과 장거리 운전으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교통사고 위험과 날씨 또한 업무 스트레스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이와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가정전문간호사 업무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전문간호사는 임상경력을 충분히 갖춘 간호사가 업무스트레스 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전문간호사의 스트레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병원의 가정간호 사업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정전문간호사 139명 이었다.

업무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CHN-PWRSQ(Community Health Nurses Perceptions of Work-Related Stressors Questionnaire)를 참조하여, 국내의 가정전문간호사의 업무에 맞게 설문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개발된 총 67문항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가정전문간호사 특성별 업무스트레스 차이는 unpaired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특성과 업무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전문간호사의 평균연령은 38.3세이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76.3% 이었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 45.3%로 가장 많았다. 고용상태는 정규직이 80.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평균 월 급여는 196.2만원이었다.
2. 가정전문간호사 평균 스트레스 점수는 177점 만점에 107.1점으로 100점 환산 점수는 60.8점이었다. 총 임상경력이 10년 미만인 군(112.2점)이 10년 이상인 군(104.7점)보다 업무스트레스가 높았다($F=2.09, p=0.039$). 가정간호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군(111.1점)이 3년 이상인 군(98.9점)보다 업무스트레스가 높았다($F=-3.30, p=0.001$). 월평균 급여가 200만원 미만인 군(99.5점)이 200만원 이상인 군(117.4점)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F=-3.30, p=0.001$).
3. 업무스트레스 항목별로는 '장거리 운전 및 교통체증'이 3점 만점에 2.63점으로 가장 높았고 '업무중 교통사고의 위험' 항목은 2.62점, '기상조건의 악화' 2.59점, '비협조적인 가족 구성원' 2.51점, '비협조적인 환자' 2.4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 가정전문간호사 연령은 업무 스트레스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0.20$)를 보였고, 임상경력 또한 업무 스트레스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0.24$)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연령, 임상경력 및 월급이 적을수록 업무스트레스가 높았고, 장거리 운전, 교통체증, 업무중 교통사고 위험으로 인하여 업무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업무스트레스가 높은 가정전문간호사를 위한 업무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가정 방문시 교통체증과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 모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려되었다.

참 고 문 헌

- 김매자, 구미옥 (1984). 간호원이 근무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 연구. 간호학회지, 14(2), 28-37.
- 김미선 (2001). 대학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와 건강증진 행위와의 관계. 산업간호학회지, 10(2), 153-163.
- 김소야자, 권보은 (2000). 한국 가정간호의 현황과 전망. 가정간호학회지, 7(1), 39-57.
- 김영자 (1995). 정신과 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스트레스 반응양상에 관한 비교 연구. 간호학회지, 25(3), 399-418.
- 김자훈 (2001). 임상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춘화, 고효정 (1999). 응급실 간호사의 근무중 스트레스와 간호업무 수행과의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11(1), 146-157.
- 서문자, 김소선, 신경림, 강현숙, 김금순, 박호란, 김혜숙 (2000). 가정전문간호사의 실무체험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0(1), 84-97.
- 오홍근, 민병일 (1993). 직장인의 스트레스. 대한심신스트레스학회지, 1(1), 113-118.
- 이경순 (1983). 간호원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혜연 (1998). 수술실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만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은경 (2001). 손해보험회사 심사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조규상 (1991). 산업보건학. 서울: 수문사.
- 최성녀 (1993). 병동간호사와 중환자실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최연희 (1999). 한방병원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5(1), 169-180.
- 최현숙 (1998). 중환자실간호사와 일반병동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홍수환 (1998). 일부병원 간호사들의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 Walcott-Mcquigg, J. A., & Ervin, N. E. (1992). Stressors in the workplace : Community

Health Nurses. Public Health Nursing, 9(1), 65-71.

- Abstract -

Key concept : Home care nurse, Job stress

A Survey on the Job Stress of Home Care Nurses*

*Kim, Hee-Seung** · You, So-Young** ·
Kim, Myung-Ja** · Baek, Hee-Chong*** ·
Kim, Yun-Ok*****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job stress in home care nurses.

Method: The subjects were 139 home care nurses of hospital in an urban citi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6 May to 27 June by self report adherence questionnaire. Job stress was measured using CHN-PWRSQ(Community Health

Nurses Perceptions of Work-Related Stressors Questionnaire). **Result:** The average score of job stress was 60.8. There were significantly high levels of job stress in those who have less than 10 years office period, those who have less than 2000000 won monthly salary than in their counterparts. With regard to the level of job stress by item, 'driving long distance and traffic jam', 'risk of traffic accident', 'bad weather condition', 'uncooperative family members', and 'uncooperative client/patient' were higher than other items. The age and office period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job stress. **Conclusion:** The average score of job stress was 60.8. 'driving long distance and traffic jam', 'risk of traffic accident', 'bad weather condition', 'uncooperative family members', and 'uncooperative client/patient' were higher than other items. The age and office period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job stres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grant Research Institute Home Health Care of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 Home Health Center, Asan Medical Center